

[오피니언]

다산포럼

최일남



오래 머물던가 크게 행세할 것도 아니면서 봄은 늘 요란하게 납신다. 산동(三冬)을 일거에 녹이기 어려운 데다 인간이 불러들인 지구 온난화 탓이 적잖겠으나 올해는 더더욱 유난스러웠다. 따뜻한 겨울만 믿고 웃자란 보리 쑥의 천진을 비웃듯, 세찬 눈과 한파를 번갈아 뿐였다. 원님의 황사까지 너무 일찍 건너와 화신북상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꽃샘바람이 개화(開花)를 토기한다고 토실토실 맺은 꽃망울이 도로 움츠러들 리 있나. 산에서 들에서 마당 넓은 집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푸르렀지기 시작했다.

봄은 타거나 일찍은 사람은 이 무렵부터 성큼한 봄나물을 찾기 마련이다. 뛰어버린 잎을 뒤찾고 춘곤을 달래기 위해.

그냥 넘어가면 어째서 가어코 지난 날을 되짚는다는 편안을 먹어 싸겠지만 예전엔 입 따로 마을 따로 놀았다. 글자 하나 다른 춘궁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온 산야를 회색으로 뒤덮었던 겨울이 물러가자마자 손톱 끝에 풀들이 들도록 나물을 캐던 처녀들이 먼저 정체불명의

신열을 않았다. 싱송생송 가슴에 슬픔 같은 희망이 고이는 시절이었다.

마을 처자들만 나를 바구니를 들고 나섰을까, 새색시도 할머니도 들로 산으로 흘어졌다. 남자는 어립없고 여자들만 나섰

쏙 캐는 남자

다.

그런데 엊그제는 동네에서 가까운 단천변을 어정거리다가 쏙 캐는 중년 남자를 보았다. 타고 온 자전거를 한켠에 세워 놓고 주머니칼로 쑥둑 자른 쑥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다.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모양이 꼭 자연스러웠는데, 실상 처음을 대하는 풍경이 아니다. 봄철이면 더러더러 눈에 띄었다. 부인네는 말할 나위 없다. 훨씬 많다.

나를 보다는 향수를 캐는 사람들인지 싶다. 몸은 비록 시멘트 군락을 벗어나지 못 할망정 마음은 때때로 고향을 떠돌아 행

장을 차리고 나섰을 게다. 보드랍게 씹히는 맛과 쌡싸래한 향기가 입 안에 가득 퍼지는 속국이 그리워 식구들에게도 보시하듯 끓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마늘과 함께 단군할아버지 탄생시킨 응어 신화는 둘째로 치고리다.

이 풍진 세상에 무엇이 가장 보수적이나 어찌나 해도 허처럼 정확하고 고집불통인 감각 기능도 드물다. 저장 검색에 뛰어난 머리가 청기지 못하는 맛을 세 치 혀는 귀신처럼 단박 알아낸다. 그러라고 달린 것 아니냐 반문하면 할 말이 없되, 어쩔 적에

언제부터인가 음식물의 영양이나 효능을 정력 위주로 품평하는 버릇이 생겼다. 아니면 말고식 입답으로 바다와 육지의 웬만한 산물에 정력제 도장을 찍는다. 번번이 남자 '거시기'에 좋다는 투로 엄지손가락을 끊어 강성 마초의 기를 돋우려 든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 '색시' 소리 드높다. 색시하지 않으면 미녀 쪽에 끼지 못하는 양. 자천 탄천 애단들이다.

관음증에 들린 듯 부끄럼을 타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으랴. 사흘에 멀다 하고 성범죄가 핀을 진다.

보리누름 전후에 속국새가 올 때쯤이면, 쑥떡 같은 쑥은 말린 재 몸을 다시 태워 사람들의 모기를 죽을 터이다.

한창훈 소설가가 신문을 통해 전한 거둔도 소식에 따르면, 쑥 재배가 섬 노인들의 유일한 벌이 수단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한 관에 팔천 원, 구황(救荒)식물의 유품인 쑥의 반만 년 역사가 고맙다.

다산 선생의 시 '채호(采蒿) 3장' 중 제1장의 몇 줄도 그만한 사정을 짚었다.

"캐어도 캐어도 허기진 이 쑥을 뜯고/ 뽑고 가리고 다듬으니 바구니 광주리에 반쯤 차내/ 돌아가 이것으로 쑥죽을 수면/ 죽인 양 밥인 양 끼니가 되네"

〈소설가·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는 대여섯 살 때 일까지 기억하는 신통력이 정말 무섭다.

우리나라 봄나물은 그나저나 얼마나 될까. '맛있는 봄나물 100선' (윤국병 장중근 공저)으로 이루어 애초에 가짓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들이나 밭에서 나는 나물과 푸성귀가 그만 못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 저자도 그래서 독자를 안심시켰다 보다. 열 가지 가령만 알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며느리 밀싹개'를 데쳐 먹는 달지, '뱉발기' 순을 녹즙으로 해서 마시는 법 등은 아닌게 아니라 낯설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바닥에서는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운기

과거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일관된 시각은 보호의 대상이자 미래의 지도력으로서 청소년 상을 상상해왔으나, 오늘의 청소년은 삶의 주체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움직임은 미래 지도력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되찾고자 하는 보다 현실적 향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그들이 꿈꾸고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요구가 곧 우리의 내일이며 변화의 지침이 될 것은 확연하다.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 청소년은 없다

그러나 삶의 주체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상응한 지위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기성세대에 의해 어긋난 행동으로 낙인찍히기 일쑤였다. 두발자율화, 내신등급제 폐지, 선거권 헌법 정요구를 비롯한 각종 문제제기들은 학업에 태만한 일부 모 dern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위이거나, 멋 내고 싶어하는 철없는 청소년들의 요구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보단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학업을 이유로 자치활동에 균간이 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학생회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의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5·18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 같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청소년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룩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의미는 기성세대들의 전유물로서 광주가 아닐까?

진정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완성은 사회발전의 파트너로서 청소년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와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로서 그들의 권리와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 노력이 시작될 때 가능할 것이다.

〈광주YMCA 서구지회 청소년팀장〉

자전거 부품 도난 당하는 일 잣아 이웃간 불신 확산

당했는지 바람이 빠져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자전거 부품 도난이야기를 했더니 자주 발생하는 일이니만큼 자전거를 각자 아파트 베란다나 복도에 보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나 복도에 놓아두는 것도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작은 자전거 부품이지만 아파트 이웃간에 이같은 절도와 그로인한 불신이 커지다니 정말 슬픈 하루였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금동

찰각! 동물세상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들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동물원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호랑이는 중국의 '팬더'

처럼 분명히 멸종위기 동물에 포함돼 있다. 19세기 초 1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었던 빙갈 호랑이는 현재 5천~6천마리만 전 세계에 남아있을 뿐이다.

급격한 감소는 차치 이 세기 안에 멸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호랑이 8종류 중 3종(자바·발리·카스파 호랑이)의 경우 지난 1990년대에 모두 멸종됐다.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밀렵과 서식지 파괴.

우리나라 백두산 호랑이의 직계조상이라 할 수 있는 시베리아(아루르)호랑이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하다.

중국과 러시아 지방에 고작 100여 마리의 야생 개체가 남아있다고 할 정도다.

이쯤되면 '동물원에서 번식시킨 뒤 아생으로 둘러 보내면 되지 않겠나?'라고 할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경우 자연적 조건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잘 번식하지도



않는다. 빙갈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턱에 잘하면 한 마리의 암컷이 일생동안 15~20마리의 새끼의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끼 호랑이들은 '동물원' 호랑이일 뿐이다. 야생에 적응하기 힘들다. 특히 인간이 대부분 잠식해 버린 야생 서식지에 누가 감히 그 위험한 호랑이를 들어놓으려 하겠는가?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경로우대 교통비, 재산규모·처지 등에 맞게 현실화해야

은행에서 근무하다 보면 창구에 오는 손님들 중 노인분들이 많다. 노인 고객들의 경우 은행에 와서 하는 업무대야 통장을 정리해서 교통비를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다. 교통비는 행정관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늘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다. 은행에 있다보니 고객분들의 예치금 내역이나 은행 거래실적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몇만원의 교통비를 타기는 노인분들 중 예의의 예치금을 가진 노부부도 적잖다.

노인교통비는 3달에 한 번씩 약 4만원 이내로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차지단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들었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한 걸로 아는 그 돈이

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달로 치면 7일정도 어딘가를 왕복 할 수 있는 요금으로써 생활이 너머치 않은 노인분들에게는 참으로 요긴한 돈이다. 그런 돈이 경로우대교통비라고 하여 65살 이상의 노인에게는 자신의 재산 소유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재고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재산의 정도와 경제적 능력에 맞춰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는 거동 못하는 분들이 있고, 시설 수용자에게도 지급된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장애인복지비용이 지급되는 게 맞지 않을까?

▲장영환·광주시 동구 총장로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여수엑스포 유치붐 확산에 모두 나서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한 사이트 릴레이 홍보행사가 대장정에 돌입했다. 광주일보와 전남도는 19일 오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이트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릴레이에 나섰다.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실사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유치 지역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펼친다. 사이트 홍보행사의 의미는 크다 하겠다. 범도민족 유치 붐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외 관광객 1천만명이 2조원 가량을 뿌리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박람회는 이 같은 단기적 경제효과와 외에 외국 국가 성장동력이 되고 지역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수세계박람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 유치 열기가 기대만큼 높지 않

손학규씨 탈당 또 구태정치 반복인가

손 전 지사의 탈당은 정치권 이합집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의 '빅뱅'은 이미 시작됐다. 열린우리당은 몇차례 흥역을 치렀고 정동영 의원과 김근태 의원 등의 거취도 주목된다. 한나라당도 경선 구도가 바뀐 상태에서 누가 언제 탈당대열에 합류할지 모른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증폭될 것이다. 우리의 정치권에서 결과적으로 거의 실패했지만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선 불참과 경선 후 탈당 등을 선언한 사례가 적지 않다. 손 전 지사도 이러한 현실을 의식한 듯 "탈당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올 줄 알았다"면서 "어떤 돌팔매도 맞겠다"고 밝혔다.

정치인이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손 전 지사는 미래, 평화, 통합의 시대를 경영할 창조적 주도세력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국민들은 구태정치를 끄집어내는지 손 전 지사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회원국이 가장 많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퀴즈프로그램에 등장할 만한 문제다.

대부분 유엔(UN·국제연합), 유네스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을 쉽게 떠올릴 것이다. 정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다. 외교관은 생각이 들겠지만 207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어 191개국의 UN이나 200개국의 IOC보다 큰 조직이다.

1886년 영국에서 국가단위의 축구연맹이 만들어진 것을 시작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 축구기구를 결성하자 1904년에 이들을 모두 통합한 국제기구로 국제축구연맹이 출범했다. 지구촌에는 230여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현존하는 운동경기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번창한 스포츠로 축구를 뽑는다. 주제화면이 없다. 신앙이나 정치체제의 차이를 넘어서는 지구인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이다.

2006년 독일월드컵 중계방송 청정지역으로, 월드컵 당시 축구가 삶을

얼마 전에 환영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는 지난 14일 남자축구 올림픽 예선 북한·이라크전이 열린 경기장 내외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일성 경기장은 경기 개시 1시간 전에 조만원